

## 결과안내 상세보기

1. 신청완료 선택 → 2. 접수완료 → 3. 처리 중 → 4. 처리완료

신청인	이민경	단체명	
고유번호	2213961	등록일	2023-12-05
신청대상	KBS2		
신청제목	소수자 차별에 대한 심의요청(개그콘서트-니통의 인간극장)		
신청내용	<p>? 니통: 무저번에 노인정 갔을 때 제가 친구들까지 도시락 다 싸줬잖아요. ? 시어머니: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그 도시락에 뭐 넣었어? 내가 두리안 쳐 넣지 말라 그랬지? 뚜껑 열자마자 나랑 씹타는 김영감이 똥 지렸나고 기저귀를 던지고 도망갔어.</p> <p>? 시어머니: 내면의 아름다움? 나를 두 번이나 맥였다 이거지? 내가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야 너 이번에 친정 보내주기로 한 거 그거 취소다. ? 니통: 아 안돼요 마마 파파한테 다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 시어머니: 더 심한 거, 더 심한 거 찾아야 돼 너 내년 생일에 오토바이 사주기로 한 거 그거 취소야</p> <p>? 시어머니: 나를 보낼려고.. 꿀도 보기 싫어, 썩 꺼져! 내 명의로 된 우리집에서 나가나가 ? 니통: 시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이거 차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차리고 그리고 시엄마 줄려고 이렇게 용돈도 준비했는데 ? 시어머니: 아이고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조금만 참을 것을. 이렇게 상도 차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줬는데.(봉투를 연다) 즈그 나랏돈을 줬네! 폐소를 어디다 써!</p> <p>----- 상기 대화는 개그콘서트 &lt;외국인며느리 니통의 인간극장&gt;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야 너 이번에 친정 보내주기로 한 거 그거 취소다."라는 내용을 2023년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상대방과 출신국가를 낮잡아 보는 시선, 자신이 가진 힘과 경제력을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협박과 통제, 압박이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적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매주 방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담당부서	지상파방송팀		
처리상태	처리완료	처리일	2025-03-14
처리결과	<p>○ 귀하의 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p> <p>- 우리말이 서툰 결혼 이주 여성의 말투와 외모를 흉내내며 희화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 방송 전반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심의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다문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말투, 외모 등을 흉내내며 예능의 주요 소재로 다룬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8차 전체회의(2025.3.4.)에서 '의견제시'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처리주무부서: 지상파방송팀</p>		

만족도 조사

[목록으로 돌아가기](#)[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누리집\) 바로가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대표전화: 02-3219-5114

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동, 서초동아타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민원접수: 국번없이 1377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copyright (c) 2024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